



엘리코사이 모어 프레쉬 샴푸

천연 성분 99.5% 샴푸 ... 모근까지 튼튼하게

피부 노화 방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분이다. 피부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 주름이 생기기 쉽다. 피부과에서도 피부 나이를 측정할 때 수분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기능성 화장품이 공통적으로 보습력을 강조하는 이유다.

김훈 엘리코사이 대표는 2008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분 좋은 촉촉함'을 표방했다. 엘리코사이라는 이름에는 히브리어로 "젊음을 창조하는 신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겼다. 회사 설립 후 보습력이 뛰어나고 유분은 적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주 고객층인 20대와 30대 여성에게는 피부 유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촉촉하지만 유분은 적어서 끈적임과 번들거림이 없다"는 입소문이 퍼졌다. 온라인과 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도 통했다. 엘리코사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 15개국에 제품을 수출한다.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다. 올해 목표 매출액은 150억원이다.

◆99.5% 천연 성분 샴푸

엘리코사이가 지난해 출시한 '모어 프레쉬 샴푸'는 99.5% 천연 샴푸라는 점을 내세웠다. 샴푸 제조 과정에서 천연 성분 함유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계면활성제는 100%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만들었다. 흑삼에서 얻은 사포닌 성분을 활용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 50가지



김훈 대표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인 모플렉스 헤어워터 볼류머를 소개하고 있다.

| | |
|--------------|-------------------|
| 엘리코사이 | |
| 설립 | 2008년 6월 |
| 위치 | 서울 강남구 |
| 제품 | 엘리코사이 모어 프레쉬 샴푸 |
| 특징 | 보습력을 강화한 천연성분 화장품 |

흑삼 사포닌·곡물 단백질 등 함유 파라벤 등 31개 유해물질 제외

美·日 등 세계 15개국에 수출 올해 매출 목표는 150억원

넣었다. 유해물질은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했다. 일반적으로 샴푸에 들어가는 파라벤 등 31가지 유해물질은 빼고 제품을 개발했다.

7가지 곡물 단백질 성분과 5가지 오일 성분 등을 넣어 모발 손상도 최소화했다.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세정 및 보습, 영양 효과를 볼 수 있고 머릿결과 볼륨감 등을 살릴 수 있다. 김 대표는 "어성초와 정교추출물 등은 두피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모근을 튼튼하게 한다"며 "자연 유래 성분이 99.5% 함유돼 임신부와 어린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엘리코사이 제품은 품질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홈쇼핑 QVC에 진출했다. 미국 헬스&뷰티스토어 체인인 CVS 매장 2400여 곳에도 입점했다. CVS는 매장이 1만 개가 넘는 미국 최대 드러그스토어 중 하나다.

◆탈모인을 위한 스타일링 제품 출시

김 대표는 탈모 증상을 완화해주는 기능성 화장품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출시한 '모플렉스 헤어 워터 볼류머'가 첫 제품이다. 탈모 걱정을 줄이면서 머리 손질을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김 대표는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도 헤어 스타일링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고정력이 약하나 스프레이와 비슷하면서 도 피부에 덜 자극적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에는 모플렉스 브랜드로 샴푸 등도 출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정보기술(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5년 넘게 IT업계에서 일하다 퇴사하고 천연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해외 현지에서 3만 원대에 팔리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10만 원이 넘는 것을 보고 자체 상품 개발에 나섰다. 천연 성분 화장품의 성장성을 보고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준비했다. 김 대표는 "국내 화장품 시장은 규모에 비해 경쟁이 치열하다"며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k@hankyung.com

가구업계 판이 바뀐다

강동혁 찰스퍼니처 대표

'빛살무늬 침대 프레임'으로 대박 빈티지한 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

헤드 부분이 빛살무늬로 된 침대를 국내에 처음 선보여 유행시킨 강동혁 찰스퍼니처 대표(사진)는 생선가게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PC방도 해보고, 전기 기술도 배웠다. 이 일 저일 해보다 가구 배송 일을 시작했다. 잘 팔리는 가구 디자인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디자인에 대한 '감'과 '촉'이 있었다. 2011년 무작정 가구 장사를 시작했다. 지금은 매출 70억원을 올리는 가구제조 회사로 성장했다.



비엔도 침대 프레임

찰스퍼니처는 창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 제품은 강 대표가 처음 제작한 '비엔도 침대 프레임'이다. 경기 파주시 소릉에서 만난 강 대표는 "2011년 무인양품 매장을 둘러보다가 착안해 만든 제품"이라고 말했다. 당시엔 디자인 도면을 그리는데 밤을 꼬박 지새우며 그려 무작정 중국 제조공장에 가져갔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디자인을 강조한 빛살무늬 침대 프레임은 출시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북유럽 트렌드와도 잘 맞았다. 중국 공장에서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다른 원목가구 대미 가격이 싼 것도 장점이었다.

했다. 강 대표는 "라인업을 확장한 건 트랜드보다 한발 빠르게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라며 "업계에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에 600평 규모의 제조공장과 물류창고도 세웠다. 제품 종류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일할 것 같아 거저나 깎은 나무가 들어간 디자인을 배제했다. 그는 "가구를 디자인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가구 자체가 아니라 가구들이 들어갈 공간"이라며 "찰스퍼니처 제품은 따뜻하고 소소한, 빈티지한 공간에 모두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국내 원목가구 시장은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원목가구 브랜드인 찰스퍼니처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자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유통업자가 많아져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강 대표는 "최근 세

비엔도 시리즈 성공 이후 하위 브랜드를 6개로 늘렸다. 전부 강 대표가 디자인하거나 선 택해 수입



shshim@hankyung.com

미세먼지·황사 습격에 ... 현대렌탈케어 공기청정기 판매 급증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지자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생활가전 렌탈업체 현대렌탈케어는 이달 들어 28일까지 공기청정기 렌탈 신규 가입 계정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5% 늘었다고 밝혔다. 9월(55%)과 10월(89%) 증가율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현대렌탈케어 관계자는 "황사가 심할 때만 이용하던 공기청정기를 매일 24시간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 데다 지난해 말부터 미세먼



지 농도가 연일 나쁨을 기록한 것이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세먼지로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기업 및 단체의 대량 구매도 늘고 있다. 이달 들어 현대렌탈케어를 통해 10대 이상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증가했다.

현대렌탈케어는 이런 수요 변화에 맞춰 최근 중형 공기청정기 '현대큐빙 더블 에어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약 105㎡ 면적을 정화할 수 있어 가정은 물론 학교 사무실 병원 등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전설리 기자 sjun@hankyung.com



대원제약, GC녹십자와 '신바로정' 공동판매계약

대원제약(백승열 부회장·왼쪽)은 29일 GC녹십자(허은철 사장)와 '신바로정' 공동판매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으로 대원제약은 GC녹십자가 생산한 신바로정을 공급받아 중합병원, 의원 등에 대한 유통과 마케팅, 판매를 맡는다. 신바로정은 소염, 진통, 골관절염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6가지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졌다. 장기 투여에도 위장과 관련된 이상 반응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대원제약은 자체 신약 '멜루비에' 이어 골관절염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열 대원제약 부회장은 "대원제약의 우수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신바로정의 고속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85.4

내수 부진 속 2개월 연속 ↓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지표가 2개월 연속 나빠졌다. 내수 부진 속에 생산과 설비투자가 감소해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21일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업황 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보다 0.7포인트, 전년 동월보다 3.7포인트 떨어진 85.4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81.1을 기록한 SBHI는 지난해 89.6으로 오른 뒤 2개월 연속 하락했다. SBHI가 100 이상이면 경기 전망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

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내수 부진과 생산 및 설비투자 감소로 경제 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12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1.2포인트 낮은 84.2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0.2포인트 내린 86.3이었다. 건설업은 2.3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데 비해 서비스업은 0.3포인트 올라 2개월 만에 반등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한만두식품 등 12개사 '참! 좋은 중소기업상'

중소기업융부즈만과 기업은행이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7회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식을 열었다. '참! 좋은 중소기업상'은 사회공헌에 힘쓰고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주는 상이다.

한만두식품은 사회공헌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회사 직원들은 매일 소외계층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매년 25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수남 영농조합법인도 지역발전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조합은 강

원도에 매년 지역기부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분야 천우토프 렌즈 다원체어스 △지역발전 분야 뷰티 화장품 에이티에스 △행복일터 분야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덕산실업 제일진 공평트 △일자리창출 분야 대성하이테크 이그니스 조인트리 등 12개 기업이 상을 받았다. 박주봉 중소기업융부즈만은 "우수 기업은 이윤 창출에만 가치를 두지 않고 사회계층 지원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idol@hankyung.com

세무, 더 이상 지식인에 의존하지 마세요.

N닥터

세무전문가 플랫폼

함께하는 세무전문가 N닥터

| | |
|---------------|---------------|
| 세무법인 코연텍스 | 0021833-9456 |
| 세무회계 한이철 | 022516-7773 |
| 신세무회계 | 022333-1354 |
| 나인스텍스 | 022584-8201 |
| 엑스플래너 세무회계 | 022430-5820 |
| 세무그룹 진 | 022743-0433 |
| 브은 세무회계 | 0226235-8673 |
| 순합 세무회계 | 0226615-0765 |
| 나인스 세무회계 | 022790-1988 |
| 우양 회계법인 | 0226238-8050 |
| 세일 회계법인 | 0226081-2777 |
| 세무법인 소리명 | 022586-0331 |
| 하나세무회계 | 022462-1994 |
| 명세무회계인실업 | 0226339-6334 |
| 신우정 세무사 사무소 | 022274-0570 |
| 하나정 세무사 사무소 | 022984-0004 |
| 세무법인 백관 | 022563-2824 |
| 유진회계법인 | 02704221-1328 |
| 세무법인 유니스 정기복부 | 0221804-8056 |
|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0221555-7112 |
| 한누리세무회계 | 0221327-2295 |
| 올원 세무회계 사무소 | 0221715-8032 |
| 오실기 세무회계 사무소 | 0221241-6180 |
| 회계법인 대교 대한 | 0421 882-1338 |
| 결한 세무회계 사무소 | 0431223-9936 |
| 결한세 세무회계 사무소 | 0521 263-9877 |
| 세무회계 송철 | 0541264-4141 |
| 박철민 세무회계 사무소 | 0551213-5808 |
| 서명우 세무회계 사무소 | 0551638-2358 |
| 이름준 세무회계 | 0551606-2300 |
| 박철민 세무회계 사무소 | 0551287-2050 |
| 회계법인 영민 컨설팅 | 0651763-9779 |
| 두은성 회계사무소 | 02511522-9833 |
| 박철민 세무회계 사무소 | 0611681-1200 |
| 세무사 박홍주 사무소 | 0621678-7001 |
| 미리세무 회계 | 0631277-2214 |
| 박신형 세무회계 사무소 | 0641725-8228 |